

코로나19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양육이 개인의 건강과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아람
대전보건대학교 반려동물과

The Impact of Pet Ownership on Individual Health and Sense of Commun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Ram Han
Dept. of Companion animal,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2022년 대전광역시 사회조사표 설문조사 중 반려동물을 양육한 사람과 양육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에 따른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과 주관적 건강 수준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에서 공동체 의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에서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반려동물 양육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책임감과 우울감 경험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주관적 건강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궁극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즉 사회 전반에도 도움을 주는 것임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양육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s part of the 2022 Daejeon Metropolitan City social surve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pet ownership on compliance with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social distancing measures, experiences of depress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differences in the sense of community, and subjective health lev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observed that the group comprising pet owners had a higher level of compliance with social distancing measures for COVID-19. Second, it was found that this group experienced lower levels of depression due to COVID-19. Third, the group of pet owners was observed to have a higher sense of community. Finally, it was observed that the group had higher subjective health levels.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s that pet ownership has a positive impact not only on social responsibility and depression due to COVID-19, but also on the sense of community and subjective health levels. Ultimately, this suggests that raising pets not only affects the lives of individuals but also contributes to the community and society as a whole. Further research on the various impacts of pet ownership on human life is thus deemed necessary in the future.

Keywords : Pet Ownership, COVID-19, Depression, Sense of Community, Subjective Health

*Corresponding Author : A-Ram Han(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email: hanarram@naver.com

Received November 8, 2023

Accepted December 8, 2023

Revised December 4, 2023

Published December 31, 2023

1. 서론

2022년에 발표된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하는 비율은 25.4%로 4가구당 1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복수응답 허용)에서 양육하는 종을 살펴보면, 개 75.6%, 고양이 27.7%이고, 이외 물고기, 햄스터, 거북이 새 등도 일부 포함되어있었다[1]. 국내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에는 급격한 산업화, 공동체 해체,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등이 있다[2]. 앞으로도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산업 또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3]. 많은 연구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반려동물이 인간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반려동물 효과(companion animal effect)”라는 용어는 2003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반려동물이 반려동물 보호자의 삶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3]. 인간이 사회적 또는 심리적으로 고립되었을 때 반려동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고[4], 이외에도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을 통해 치유 효과를 경험하였다[5]. 또한 사람과 동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효과가 있고[6], 반려동물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 향상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다[7,8].

코로나19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발생률과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 3월 11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ions, 이하 WHO)에서 이를 전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인 최고 등급 팬데믹을 선포하였다[9].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는 비말을 통한 직접 전파 외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질 때 간접적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10].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중에서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11]. 국내에서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되었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고, 2023년 8월 31일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단계로 하향 조절하며, 사실상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하였다[10].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금융, 고용, 실업 등의 경제활동 등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불안, 앞으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우울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지만, 이것이 지속되고 본래의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불편함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낙인, 타인과의 상호작용 제한 등 스트레스를 야기하였고, 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안정감을 약화시키고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 반응을 유발하였다[12]. 또한, 우울감은 자살과도 강한 관련성이 있고[13], 이외 폭력적 사고, 대인관계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준다[14].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여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제각기 다르다[12]. 그러므로 우울감 등 부정적 감정을 낮추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13].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은 개인이 한 공동체에 속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15].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의 향상에도 영향을 주고,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며 반대로 외로움은 줄여준다[16]. 또한 공동체 의식은 소속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17]. 즉,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개인은 공동의 운명을 지닌다 생각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주관적 건강은 개인이 인지하는 신체적, 건강 상태를 의미하고 인구집단의 건강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이 된다[18]. 주관적 건강에는 개인의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여러 사람과의 관계 등이 영향을 주고, 특히 본인의 생활에 만족할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18,19]. 또한, 주관적 건강 수준의 목적은 질병 그 자체 보다는 안녕(well-being) 상태를 측정하는 면이 강하고, 개인이 인지하는 수준이므로, 검사로 알 수 없는 건강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건강지표로 널리 사용이 된다[20].

국내 기존 연구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주는 영향에 대한 보고가 없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종에 따른 영향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의 양육이 코로나19와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외 반려동물의 양육이 공동체 의식과 주관적 건강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1. 반려동물의 양육 여부와 양육 종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정도 및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반려동물의 양육 여부와 양육 종이 공동체 의식 및 주관적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2년 대전광역시의 사회조사표(가구주)에 응답한 사람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 1,022명과 양육하지 않은 사람을 3,978명 총 5,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반려동물 양육 분포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Pet ownership Distribution of Participants

Classification		Respondents	Percentage
Pet Owners	Dog	659	13.18
	Cat	191	3.82
	Fish, Bird, etc	172	3.44
Non-Pet Owners		3,978	79.56
All		5000	100

2.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2022년 대전광역시의 사회조사표(가구주) 설문지 문항 중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설문지 문항은 반려동물 양육,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정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 주관적 건강 평가 각 1개 문항과 지역공동체 의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이고, 나머지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감 경험, 공동체 의식, 주관적 건강 평가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지역공동체 의식의 문항은 Cronbach's $\alpha = .859$ 이었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의 2022년 대전광역시 사회지표 원자료(SPSS로 프로그램화된 파일)를 SPSSwin 27.0 Program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여기에 사용된 통계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t-검증(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이고,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를 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로 구하였다. 다만, 각 항목 문항의 결과를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2022년 대전광역시의 사회지표 보고서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3. 연구 결과

3.1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우울감 경험의 차이

3.1.1 반려동물 양육 여부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우울감 경험의 차이

반려동물 양육한 집단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수준은 반려동물을 양육하지 않은 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1.87$, $p<.001$ 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의 수준이 양육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5.82$, $p<.001$ 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Pet Ownership and COVID-19-Related Experiences

Variables	Pet Owners (n=1,022)		Non-Pet Owners (n=3,978)		t
	M	SD	M	SD	
Compliance with COVID-19 social distancing	3.33	0.53	3.30	0.51	1.87***
Experience of depression in daily life due to COVID-19	3.07	0.91	3.24	0.97	5.82***

*** $p<.001$

3.1.2 반려동물 양육 종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우울감 경험의 차이

반려동물 양육 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개를 양육한 집단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Pet Ownership and COVID-19 Related Experiences

Variables	Dog Owners(a) (n=659)		Cat Owner(b) (n=191)		Fish, Bird, etc Owners(c) (n=172)		F	Scheffe
	M	SD	M	SD	M	SD		
Compliance with COVID-19 social distancing	3.36	0.53	3.29	0.53	3.23	0.52	4.76**	a>c
Experience of depression in daily life due to COVID-19	3.18	0.95	3.22	0.92	3.48	1.08	6.58***	a<c, b<c

p<.01, * p<.001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Pet Ownership and Sense of Community, Subjective Health Levels

Variables		Pet Owners (n=1,022)		Non-Pet Owners (n=3,978)		t
		M	SD	M	SD	
Sense of Community	Getting Along Well and Knowing Each Other	2.73	0.87	2.68	0.85	1.48
	Frequent Discussions About Neighborhood Happenings	2.65	0.93	2.58	0.88	2.30
	Helping Each Other with Difficult Tasks	2.60	0.96	2.42	0.88	5.99***
	Active Participation in Neighborhood Events	2.38	0.94	2.22	0.89	5.31***
	Total	10.37	3.09	9.90	2.92	4.58***
Subjective Health Status		3.24	0.97	3.07	0.91	5.02***

***p<.001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Pet Ownership and Sense of Community, Subjective Health Levels

Variables	Dog Owners(a) (n=659)		Cat Owner(b) (n=191)		Fish, Bird, etc Owners(c) (n=172)		F	Scheffe	
	M	SD	M	SD	M	SD			
Sense of Community	Getting Along Well and Knowing Each Other	2.75	0.87	2.58	0.86	2.80	0.90	3.56**	
	Frequent Discussions About Neighborhood Happenings	2.65	0.92	2.55	0.92	2.78	0.96	2.12	
	Helping Each Other with Difficult Tasks	2.58	0.97	2.54	0.90	2.77	0.94	3.37*	
	Active Participation in Neighborhood Events	2.36	0.93	2.31	0.93	2.59	0.97	4.67***	s<c, b<c
	Total	10.34	3.07	9.99	3.00	10.37	3.09	4.10*	b<c
Subjective Health Status		3.72	0.84	3.94	0.73	3.75	0.83	6.97***	a<b, b<c

* p<.05, **p<.01, *** p<.001

거리두기 준수 수준이 높았고, 다음은 고양이를 양육한 집단이었다. 그리고 새, 물고기 등을 양육한 집단은 세 집단 중에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Scheffe's test로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개를 양육한 집단과 새, 물고기 등을 양육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중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를 양육한 집단이 적게 경험하였고 다음은 고양이 양육한 집단이었다. 그리고 새, 물고기 등을 양육한 집단은 세 집단 중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s test로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개를 양육한 집단과 새, 물고기 등을 양육한 집단, 고양이를 양육한 집단과 새, 물고기 등을 양육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3.2 공동체 의식과 주관적 건강 수준의 차이

3.2.1 반려동물 양육 여부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주관적 건강 수준의 차이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의 공동체 의식 평균이 반려동물을 양육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4.58$, $p<.001$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의 주관적 건강 평가 평균이 반려동물을 양육하지 않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5.02$, $p<.001$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3.2.2 반려동물 양육 종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주관적 건강 수준의 차이

반려동물의 양육 종에 따라 공동체 의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새, 물고기 등을 양육한 집단이 공동체 의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개를 양육한 집단이었다. 그리고 고양이를 양육한 집단은 세 집단 중에서 공동체 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Scheffe's test로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새, 물고기 등을 양육한 집단과 고양이를 양육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종에 따른 주관적 건강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6.97$, $p<.001$ 로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세 집단 중 고양이를 양육한 집단이 주관적 건강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그 다음이 새, 물고기 등, 마지막으로 개를 양육한 집단이었다. Scheffe's test로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개를 양육한 집단과 고양이를 양

육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고양이를 양육한 집단과 새, 물고기 등을 양육한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22년 대전광역시의 사회조사표(가구주)에 응답한 사람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 1,022명과 양육하지 않은 사람 3,978명 총 5,00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반려동물의 양육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정도와 우울감 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공동체 의식, 주관적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의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정도가 양육하지 않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이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방역 수칙을 평균적으로 더 잘 준수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를 양육한 집단이 다른 동물을 양육한 집단에 비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이 양육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적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를 양육한 집단이 다른 동물을 양육한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로 우울감을 가장 적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이 양육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새, 물고기 등을 양육한 집단이 다른 동물을 양육한 집단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이 양육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고양이를 양육한 집단이 다른 동물을 양육한 집단에 비해 주관적 건강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반려동물을 통해 우울감과 외로움 등 부정적 정서를 적게 느낀다는 연구[21]와 의미를 같이한다. 또한 반려동물 중 반려견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공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의 결과하고도 일치한다[22].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현대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교류도 이전 시대보

다 많다. 또한 과학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은 계속되었지만,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당연시되던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대면 일상이 비대면 일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본래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성숙하고 발달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사회적인 제지로 인해 사람들과의 소통과 같은 정상적인 일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로 인한 부정적 감정 경험, 스트레스 등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12]. 하지만, 이번 논문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양육이 개인의 정서와 공동체 즉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대전광역시 사회조사포의 설문지를 분석한 연구로 설문 도구가 단편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구에서 검증된 도구를 활용한 종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반려동물의 양육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22 National Survey on Public Awareness of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Korea.
- [2] S. Y. Lee, *The meaning of 'Pets' from the prospect of social science in the modern korean society*,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9.
- [3] K. Allen, "Are pets a healthy pleasure? The influence of pets on blood pressur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12, No.6, pp.236-239, 2003.
DOI: <https://doi.org/10.1046/j.0963-7214.2003.01269.x>
- [4] N. M. D. Antonacopoulos, T. Pychyl, "An examination of the potential role of pet ownership, human social support and pet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of individual living alone", *Anthrozoös*, Vol.23, No.1, pp.37-54, 2010.
DOI: <https://doi.org/10.2752/175303710X12627079939143>
- [5] O. J. Kim, "Animal-assisted therapy and Animal welfare of treatment assistant animals",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Vol.48, No.12, pp.743-747, 2012.
- [6] O. J. Kim, *Animal-assisted therapy-CTAC method: intervention techniques and techniques using dogs program*, Munwoondang, Korea, 2015.
- [7] Y. R. Jeong, J. H. S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imal Assisted Education Program with Abandoned Dogs and the Impact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aracter",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34, No.1, pp.61-83, 2021.
DOI: <https://doi.org/10.24062/kpae.2021.34.1.61>
- [8] T. Y. Choi, K. M. Lee, I. A. Ryu, "The effect of dog-raising activities on the reduction of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attachment, and happiness of the compan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Animal Assisted Psychotherapy*, Vol.11, No.2, pp.39-47, 2022.
- [9] World Health Organization, *Coronavirus disease (COVID-19) : situation report, 182*,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 [10] H. Y. Ja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Job Experience of Social Workers in Elderly Care Facility in COVID-19 Pandemic Situation*,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11] Y. C. Bahk, K. H. Park, N. E. Kim, J. H. Lee, S. R. Cho, "Psychological Impact of COVID-19 in South Korea: A Preliminary Stud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9, No.4, pp.355-367, 2020.
DOI: <https://doi.org/10.15842/KJCP.PUB.39.4.355>
- [12] H. S. Yun, *The Effect of COVID-19 Stress on Depression, Anxiety, PTSD Symptoms: Moderating Effect of Optimism and Gratitude Disposition*,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13] M. S. Lee, "The current status and diagnosis of recent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Vol.30, No.6, pp. 505-511, 2013.
- [14] B. R. Kim, D. H. Lee, D. Y. Lee, D. H. Lee, "The Relationship of Trauma Event Experience on Psychological and PTSD Symptoms, and Posttraumatic Growth: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Ability",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24, No.1, pp.117-145, 2019.
DOI: <https://doi.org/10.17315/kihp.2019.24.1.006>
- [15] M. H. Choi, M. G. Jeong, "The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on citizen participa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9, No.2, pp.273-306, 2015.
DOI: <https://doi.org/10.18333/KPAR.49.2.273>
- [16] M. Prezza, S. Costantini,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Investigation in three different territorial context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8, No.3, pp.181-194, 1998.
- [17] D. M. Chavis, A. Wandersman, "Sense of community in the urban environment: A catalyst for particip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8, No.1, pp.55-81, 1990.
- [18] M. J. Koo, *The effect of economic conditions of the new middle-aged 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2.
- [19] H. W. Kang, G. H. Han, "Negative Family Life Events, Spousal Support and Mental Health: Focus on Gender

- Differences”, *Human Ecology Research*, Vol.43, No.8, pp.55-68, 2005.
- [20] J. H. Shin, *Effects of Perceived Health Status on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of Morning Taekwondo Training*,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2013.
- [21] S. Y. Kim, G. H. Youn, “The Relationship Between Pet Dog Ownership and Perception of Loneliness: Mediation Effects of Physical Health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Vol.25, No.1, pp.215-233, 2014.
- [22] M. R. Burch, A. Fine, Program evaluation and quality assurance in animal-assisted therapy. Handbook on animal-assisted therapy: Theoretical foundations and guidelines for practice, p588, Academic Press, USA, pp.129-149, 2000.

한 아 람(A-Ram Han)

[정회원]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수의과 대학 수의학과 (수의학사)
- 2012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의학과 (수의학석사)
- 2016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수의학과 (수의학박사 수료)
- 2017년 3월 ~ 2021년 2월 : 혜전대학교 애완동물관리과 조교수
- 2023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반려동물과 조교수

〈관심분야〉

반려동물 산업, 수의학